

# “남은 인생 후학 양성 · 고성발전 위해 봉사”

28년 몸담은 軍 전역 후 고성정착 김정균 중령 … “군인이었다는 점 자랑 · 위상 낮아져 아쉬워”

“좋은 직업이란 자기가 좋아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과 지역을 방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어요. 후회나 미련은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8군단 40관리대대 대대장을 마지막으로 28년간 몸담았던 군 생활을 마무리한 김정균 중령(53세, 사진)은 “이제 남은 인생은 후학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년 6월이면 만기인데 조기 전역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내년부터 경동대 강의에 충실하고, 마무리 하지 못한 논문시험에 통과해 박사 학위를 따고 싶고, 그리고 공현진에 남은 여생을 보낼 주책을 짓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것.



김정균 중령이 지난달 31일 전역식에서 부인, 장모와 함께 케익을 자르고 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그는 1982년 서울대 입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학사장교 3기로 임관하면서 군대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거쳐 2007년 7월 53연대 부연대장을 맡으면서 고성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2009년 10월부터는 자청해 지역 예비군을 총괄하는 40관리대대 대대장을 복무해왔다.

“누구나 국방의 의무는 있는데, 이왕이면 병사로 가는 것보다는 장교로서 리더의 소양을 개발하고 싶었죠.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강한 매력을 느껴 장기 지원을 했고, 결국 평생 직업 군인으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김중령은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로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고, 원하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로 그는 군 복무 중에도 공부를 계속해 2003년에는 국방대학원에서 군사전력과 석사 학위를 받고, 2009년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앞서 전역 후 마무리하지 못한 논문시험에 통과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말하는 것이다.

김중령은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성군에 정착하기로 했다. 1983년 소위 임관과 함께 결혼한 원주 출신의 부인 이은주씨(48세)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고성군은 동해안과 설악산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고 4계절 아름다운 지역이죠. 또 예비군 대대장을 하면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어울리다보니 인심이 후하고 친절하기도 알게 됐고요. 한마디로 경치 좋고 인심 좋은 곳이니 이곳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고성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와 전혀 낯설지가 않다고 했다. 수성축구회, 간성골프클럽, 고성라이온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간성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거탄진 족구클럽에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동대학교 군사학과 외래교수로 일하며 받은 강의료 전액을 매년 고성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사후 장기와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제 28년간 정든 군 생활을 정리하고



평범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김중령은 “처음 임관 때와 비교해 지금은 복지나 경제적인 측면은 크게 나아졌지만, 군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낮아져 아쉽다”며 “군인이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후학양성과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제13회 고성명태축제 화제의 인물 2명

### “타고난 체력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

#### 고성장사씨름대회 우승 강태경씨

“평소에 운동을 즐겨 몸을 다진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13회 고성명태축제 기간 중 열린 고성장사 씨름대회에서 간성읍에 사는 강태경씨(42세, 사진)가 우승을 차지했다.

5개 읍면에서 선발된 씨름대표 8명이 경합을 벌인 이날 대회에서 강태경씨는 간성읍 대표로 출전해 1,2회전을 이기고 3판2선승제의 결승전에서 거진 대표를 2대1로 이겨 우승의 영예와 함께 부상으로도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았다.

168cm의 키에, 73kg의 단단한 체격인 강씨는 결승전에서 120kg의 거구와 맞붙어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강씨는 어릴 적 친구들과 씨름을 겨루면서 자연스럽게 씨름기술을 습득했을 뿐 씨름선수로 활동한 적은 없고,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다고 한다.

씨름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강씨는 지역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고성장사 씨름대회에서 개인전 2위, 도민체전 개인전 동메달 등을 따냈으며,

1995년부터 올해까지 고성수성문화제 지역 씨름대표로 줄곧 활약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성문화제 씨름경기에서 150kg의 거구와 만나 2대1로 이겨 관객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큰 체구는 아니지만 타고난 체력이다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을 지닌 강씨는 씨름뿐만 아니라 축구와 육상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 지역의 각종 대회에서 활약 중이다.

금강농협 파머스마켓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씨는 바쁜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각종 운동경기 참가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강씨는 1995년 수성문화제에서 육상 대표로 출전한 이복순씨와 결혼해 2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

### “자기에게 맞는 노래부르는 게 비결”

#### 군민노래자랑 대상 박두원씨

“노래 잘하는 비결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이 듣기 편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지난달 30일 예심을 거쳐 올라온 13명의 주민들이 경합을 벌인 제13회 고성명태축제 군민노래자랑에서 태진아의 ‘바보’를 불러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박두원씨(55세, 거진읍, 사진).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한 그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노래자랑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 거진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였다. 지난해에는 수성문화제 기념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거진에서 태어나 4세 때 가족과 함께 대진으로 이사해 대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다. 그 후 속초에서 20년 생활하다, 3년전에 고향인 거진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

대진건설이라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박씨는 취미활동으로 음악을 즐긴다. 속초예총 설악연예인협회 가수분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리아랑봉사회 활동도

하고 있다. 노래뿐만 아니라 운동도 만능이다.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며, 일요축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에는 발라드를 많이 불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트로트를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음악을 즐긴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부르다보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씨의 재능을 닮았는지 둘째 아들 정길씨(27세)는 서울에서 직업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너란 말이야’ 등 4곡이 수록된 미니음반을 발매했다. 이 가운데 2곡은 골프선수 신지애와 뚜엣으로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대에 계속 오르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저 자신도 행복하니까요.”

최광호 기자

